



문명사적 대전환기 대한민국 외교대전략 구상과 대미얀마 정책

도태 아닌 도약으로, 비난을 딛고 비약으로

김태현

중앙대학교 명예교수 · 한·미얀마 경제·안보연구회 학술담당 이사

2026. 9. 15.

KEYNOTE

“문명사적 대전환과
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,
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
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.”

“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,
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,
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

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

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.”

절대 찬성입니다.
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?



이재명 대통령,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

오늘 던질 세 가지 질문

01

문명사적 대전환기란
무엇인가?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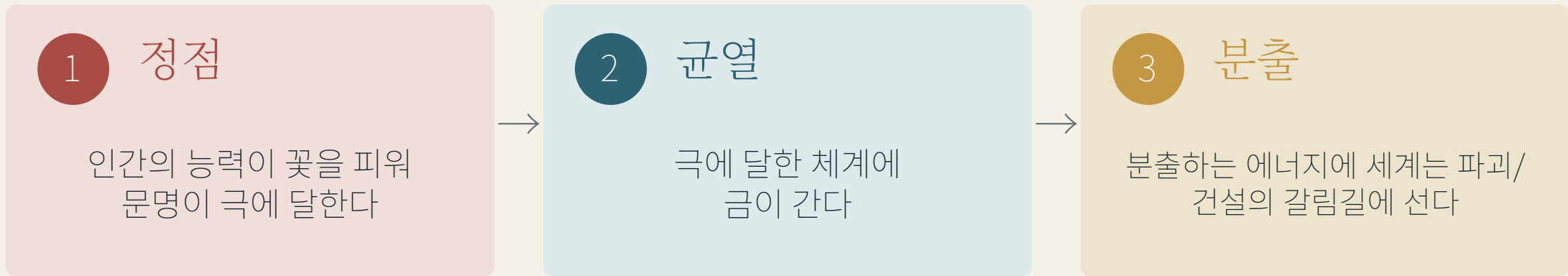
도태를 피하고 도약하려면
외교태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?

03

미얀마에 비난만 할 것인가,
비약을 만들 것인가?

문명의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됐다

인류문명은 극에 달했고,
그 정점에서 균열이 터져 나온다.



파괴를 건설로 승화하는 힘 — 인간의 지혜

총·돈·말 — 세 갈래의 참람

총

생존

핵무기

폭력의 포화

돈

생계

세계시장·금융

위험의 증폭

말

의미와 충만

인공지능

능력의 과신

공통 분모: 신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참람

잠든 질서를 깨운 경동

냉전이 끝난 뒤 세계는 멈추고, 앉고, 눕고, 잠들었다.



질문은 ‘세계가 변하는가’가 아니라
‘그 변화를 누가,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’이다.

대전환은 ‘극의 수’만 바뀌는 일이 아니다

낡은 렌즈

단극 → 양극 → 다극 → 무극

질서를 ‘힘의 분포’ 하나로 읽는다

누가 더 큰가?

새 렌즈

힘의 크기 × 힘의 구성비

서로 다른 능력이
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만든다

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
세계질서는 능력의 위계와 역할의 분화가 씨줄·날줄로 얹힌 결과다

국제질서의 분담표: 위치 × 기능영역

세로 총체적 국력 → 역할의 위계

가로 국력 구성비 → 기능의 분화

위치 × 영역	정치 질서유지	경제 생산·유통	사회 규범·문화	정보 소통·교류
상	패권국 리더	상류 디자인	제정자 생산자	허브 개시자
중	중견국 관리자	중류 조립	해석자 배급자	커넥터 라우터
하	추종자	하류 원료	수용자 소비자	수신자 소비자

국가마다 차지하는 칸이 다르고, 큰 나라는 여러 칸을 차지한다. 세상에 쓸모없는 나라는 없다.

대한민국의 선택: 적응이 아니라 선도

도태

흐름을 못 읽고
뒤처진다

대응

변화에 쫓아가며
도태를 피한다

도약

자기 자리를 찾고
새 질서를 만든다

질서의 소비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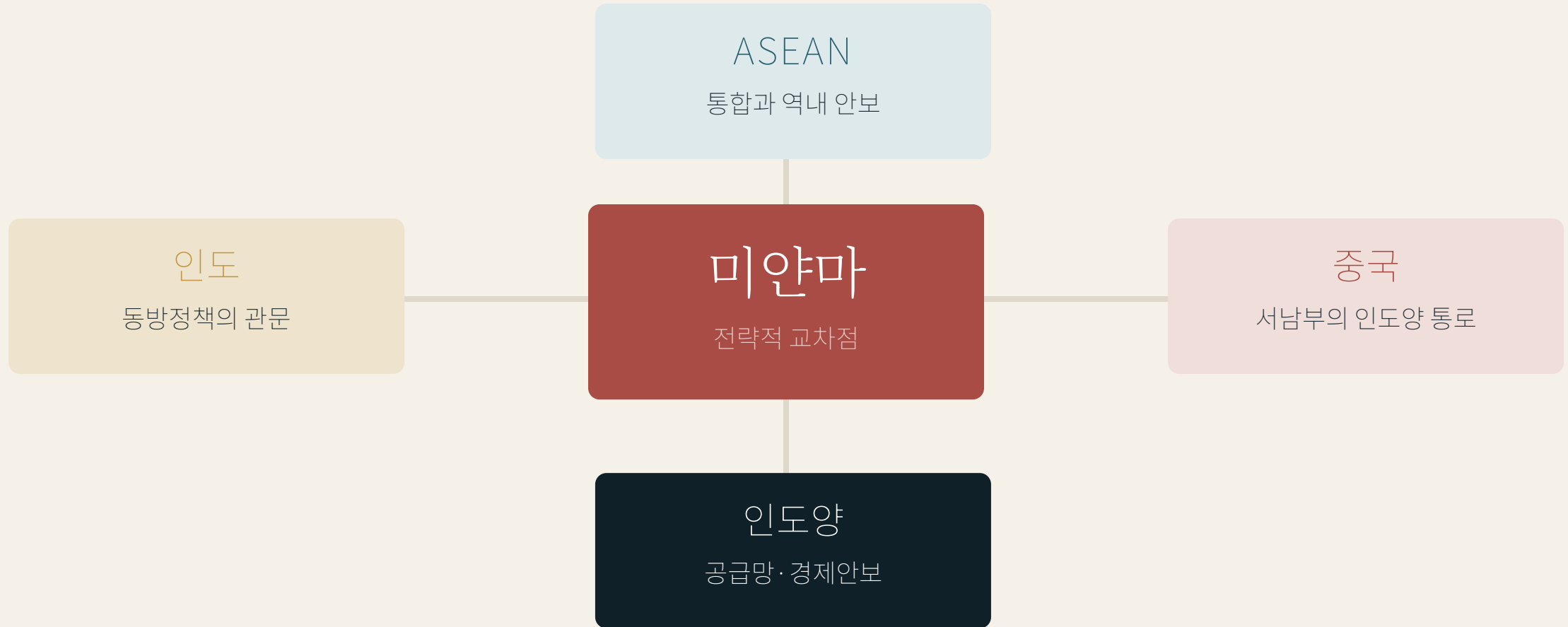
관리자·커넥터



질서의 창조자

외교태세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 만든 국가의 에토스(ethos), 곧 국격을 표출한다.

왜 미얀마인가: 네 질서가 만나는 교차점



강대국 사이의 공간 — 대한민국 같은 중견국이 움직일 자리

가치냐 이익이냐가 아니라,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

현재의 태세

제재 · 단절 · 격하

외교관계 축소
공식 접촉 제한
영향력의 공간도 축소

대화
≠
승인

전환할 태세

원칙 있는 관여

접촉하면서 할 말은 한다
협력할 것은 협력한다
반대할 것은 반대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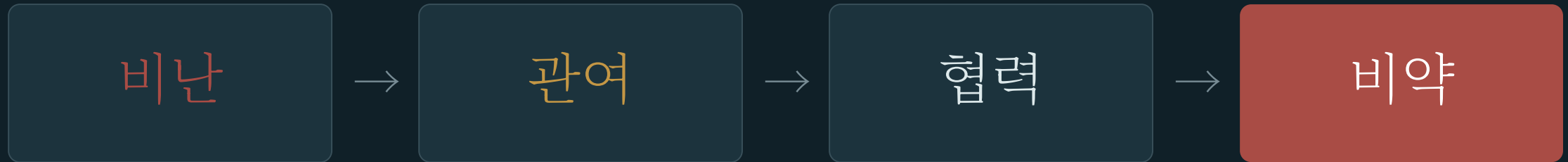
질문을 바꾸자: ‘제재할 것인가, 관여할 것인가?’ → ‘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가?’

비난에서 비약으로 — 다섯 가지 실행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|
| 1 | 외교관계 정상화 | 다자외교 계기와 정상급 접촉을 활용한 고위급 대화 재개 |
| 2 | 외교역량 격상 | 현지 전문성을 갖춘 특명전권대사 임명과 공식 채널 복원 |
| 3 | 2027 네피도 회의 | 한국의 경제·정치 발전 경험과 미얀마의 교훈을 심층 논의 |
| 4 | 개발협력 패키지 | ODA + EDCF + 민간투자를 인프라·에너지·보건·교육에 연계 |
| 5 | 민간협력 선도 | 양곤 비즈니스 포럼: 정부 Top-down × 민간 Bottom-up |

대한민국은

질서의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,
질서의 창조자가 될 것인가?



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. 지금은 비약할 때다.

도태를 피하는 외교를 넘어, 도약을 만드는 외교로